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함평군, 사포관광지 2단계 조성 박차

함평군은 화교면 곡창리에 조성 중인 사포관광지를 기존 야구장과 연계한 특화된 스포츠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2단계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일 기아타이거즈 허영택 대표이사, 조계현 단장, 김기태 감독, 임동평 기자동차 관제팀장이 안병호 함평군수를 만나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한 대답을 나눴다.

이 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기아자동차가 화교면 곡창리 일대 3만 3715㎡의 부지에 2019년 상반기까지 함평 기아 헬리콥터빌드 퓨처스리

내년 기아타이거즈 퓨처스리그 전용구장 완공

조명탑 등 설치 야간 경기·관람 가능토록 조성

그 전용구장(가칭)을 완공할 계획이다 2군의 서머리그 시간을 감안해 조명탑 등을 설치해 야간에 경기 및 관람이 가능토록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헬리콥터빌드를 개장한 데 이어 퓨처스리그 전용구장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함평군이 한국프로야구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

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부지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착공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야구장이 완공되면 2019년부터 퓨처스리그 지상과 중계, 경기 관람객 증가 등 직간접적

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019년 말 영산강 강변도로까지 완공되면 인근 함평엘리체CC 등과 함께 스포츠 관광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후속단계로 (주)서진종합건설과 함평엘리체CC가 콘도 등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3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단계까지 마무리되면 사포관광지 일대가 전남 서부권의 복합스포츠 휴양지로 위용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함평=김광환 기자



장성군, 인구 증가 회복세 보여

연어프로젝트로 인구 늘리기 성과 거둬

장성군 인구가 인구 증가 시책인 '연어프로젝트'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지역도 있는 상황에서 장성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건 이례적이다.

장성군 인구는 그동안 다른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이혼양육에 따른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인구 늘리기 시책인 '연어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인구는 2016년보다 41명 늘어난 4만7,259명을 기록했다. 한 해에 1,000명 이상씩 인구가 감소한 탓에 인구절벽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까지 놓인 지자체가 상당수인 만큼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건 고무적이라고 할 만하다.

장성군은 인구 문제가 자체 존립과 직결돼 있다는 판단 아래 인구를 늘리는 데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각 실과는 업무 특성에 맞춰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출산장려 및 보육, 도시민 유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연어프로젝트'에 동참한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기업체, 유관 기관, 사회단체, 군민 등 각 분야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거버넌스'를 지향한다는 점도 장성군 인구 늘리기 시책의 차별점이다. 장성군은 나노산단 입주기업 CEO들에게 '연어프로젝트' 동참을 요청하고, 지역 사람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연어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토론과 유관기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장성군 인구 늘리기에 사회 모든 분야가 동참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성군은 '연어프로젝트'로 인구 늘리기에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부터 인구 감소뿐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령 은퇴인구를 지원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도 나서는 것.

이를 위해 장성군은 현대식 공공

실버주택을 비롯한 인구구조 맞춤형 생활공간을 조성해 고령 친화도시를 만들고 신중년과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또 '효도권', '보양나눔'을 비롯한 어르신 복지 시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인구 전망이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전라남도 귀농·귀촌 우수 시군에 2년 연속 선정될 정도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세가 이어지고 있다. 함께 출산을 역시 2015년 전국 4위, 2016년은 전국 6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양호하다.

향후 인구 증가요소도 많다. 민선 6기 들어 LH 3·4차 공공주택과 현대식 공공실버주택을 유치하고, 나노산단에 우수기업을 다수 유치했으며, 국립심혈관센터 유치하는 데도 성공했다. 장성군은 각 사업 완료 시기와 맞물려 인구 증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은 인구 문제가 지자체 존립을 좌우하는 사안인 만큼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인구 늘리기에 쏟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총무과에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고 '연어프로젝트'를 추진력 있게 실행하기 위해 총무과장을 지방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한 것도 '연어프로젝트'에 쏟는 장성군의 노력을 방증한다.

유두석 군수는 "이프리카 속담에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게 있다"라면서 "살기 좋은 장성을 만들어 단 한 명의 인구라도 더 장성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단 한 번의 아이 울음소리라도 장성군에서 더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영광군, '제안활성화' 전남도 평가 최우수군 선정

열린 행정으로 군민의 목소리 귀 기울인 결과



영광군이 지난해 '전남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제안 우수기관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제안의 접수율, 채택률, 제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제안 프로그램 운영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고, 영광군은 2014년, 15년 장려상에 이어 2017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영광군은 국민과 공무원들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559건의 제안을 모집하였고, 그중

27건을 채택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를 통해 신규시책 등으로 실시하였고, ▲6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중앙우수제안 심사에서 '부도건강 알림 서비스' 제안이 장려상에 선정되었으며, 제안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전 직원 대상 '제안 마인드 활성화 교육', ▲신규 공무원 대상 '새책 아이디어 모집', ▲1차 채택 제안 대상 현장 심사제 도입, ▲1년간의 제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불채택 제안의 재제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안제도 활성화를 시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목표로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시책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평소에도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제안을 모집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보성군,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박차

보성군은 지난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위한 '마을만들기 예비계획수립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공무원, 용역사, 각 마을별 추진위원장 및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마을의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마을 전반의 개선을 유도하고 지역특성이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

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군은 예비계획 용역보고에 앞서 지난해 상반기에 용역사를 통해 마을 현장포럼을 진행하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에는 '우리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해 5개 우수마을을 선정했다.

5개 우수마을은 읍어면 장수마을, 문덕면 법화·내동마을, 조성면 평촌·상신마을이다.

예비계획으로 ▲장수마을은 공동생활회 조성, 야외화장실 신축, 마을 가로등 설치 ▲내동마을은 청계서당 복원, 별자리 문화갤러리, 안전보행길 조성 ▲법화마을은 공동체 거점공간 빈집정비 ▲평촌마을은 마을물레길, 소공원, 생태주거장 설치 ▲상신마을은 원골생태쉼터, 주민친수공간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군, 아쿠아 관절 운동교실 수강생 모집

고흥군은 다음달 9일까지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아쿠아(수중)관절 운동교실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회관 수영장에서 3개월간 보건소 운동처방사와 고흥군체육회 전문수영강사의 지도로 ▶관절수중운동 ▶수중 에어로빅 ▶개인별 맞춤형 수중운동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으로 참여희망자는 보건소(☎061-830-6672)나 해당 읍·면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운영은 다음달 27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연중 실시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지난 2003년에 시범적으로 운영된 아쿠아(수중)관절운동교실은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20명이 참여하는 등 관절염 증상 완화와 만성퇴행성 관절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되어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의 규칙적인 운동습관과 관절염을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져 건강한 인생 후반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 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 가겠습니다

- 안전한 에너지를 전가후-사후 관리할 수 있는 대량발전소
- 무심과 핵심기술을 이용한 용량발전소
- 도심 속 조밀한 환경유지-친환경발전소
- 유기물의 생분해성을 이용한 환경바이오메스빌린소추진
- 비핵심재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지열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